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14호 【루게 제2306호】주제99(2010)년 4월 24일(토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수리아 디마스끄종합대학대표단이 선물을 올리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수리아 디마스끄종합대학 대표단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선물들을 수리아 디마스끄종합대학 전략연구소 소장인 씨미르 이스마일단장이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이란이슬람공화국 외무성대표단 단장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이란이슬람공화국 외무성대표단 단장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선물들을 이란이슬람공화국 외무성 부상인 모함마드 알리 파들라리 단장이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께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중국 항일혁명렬사 장우화동지의 가족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영웅적조선인민군 장군 78룡에 즈음하여 23일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우화동지의 가족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꽃바구니의 명기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씨가 쓰여져있다.

본사기자

수령결사옹위의 가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조선인민군

여러 나라 신문이 널리 소개

일찌기 백두밀령에서 항일혁명투사들에 의하여 창조되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앞장에서 받아들이는 길에서 더욱 높이 발양되고 있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자랑스러운 전통인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여러 나라 신문이 적극 소개하고 있다. 에리트레아 신문 《알 마싸이아》는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조선인민군의 령도는 곧 수령결사옹위의 령사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인민군은 창조초기부터 수령결사옹위의 가치를 들었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혁명의 사명부를 목숨으로 보위하자!》라는 구호를 들었다. 항일혁명투사들이 창조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은 해방후 정규무력으로 발전된 조선인민군에 있어서 귀중한 전통으로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 용사들은 조국은 곧 김일성장군

의 품이며 그이를 결사옹위하는 것이 조국을 지키는 길이라는 신념을 간직하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들고 싸웠다. 수령결사옹위정신은 전후에도 변함없는 조선인민군의 생명선이었다.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충만한 군대가 있기에 사회주의조선은 강력하다. 조선인민군의 수령결사옹위는 령도자의 신변만 보위하는것이 아니며 령도자의 정치사상적위위를 결사옹위하고 그들의 구상과 의도를 결사판결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메히요신문 《우니다드 나세오 날》은 오늘 조선인민군안에는 수령결사옹위정신이 짙 차나고있고 전체 군인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라면 물과 불속에도 서슴없이 뛰어드는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들로 여세를 준비되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이것은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신념의 구호라고 전하였다. 네팔신문 《페르짜》는 조선인민군 군인들속에는 수뇌부안전을 위하여 불타는 비행기와 함께 서슴없이 자폭의 길을 택한 군인도 있고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김정일장군 만세!》라는 글발을 남기고 최후를 마친 15명의 군인들도 있으며 러지는 수류탄을 몸으로 덮어 김일성 주석의 초상화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시고 동지들을 구원한 군인들도 있다고 찬양하였다. 이란신문 《카이한 인터내셔널》은 김정일각하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군의 사상과 신념의 위력을 존할 때 특히 강조하게 되는것은 김정일각하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이자 김정일각하의 신념의 군인들이라고 찬양하였다. 수령결사옹위의 가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조선인민군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대중적영웅주의와 집단적혁신으로 대고조시대를 빛내이자

농사일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집중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시기 인민생활을 높이는 데서 기본은 식량문제, 먹는 문제, 푸는것이이며 농업전선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집중하여 대고조의 불길들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전선의 하나입니다.》 각지 농촌당조직들에서는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식량생산에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도록 하기 위한 당조직정기사업을 실시하게 될러나고있다. 연안군 수봉리당위원회에서는 농업근로자들을 총공세에로 불러들이는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올해의 농사차비전투에

구동원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하여 비닐밭막을 비롯한 영농자재를 해결하고 부원들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게 하였다. 안변군 천삼리당위원회에서는 부림소축산농장의 역할을 높여 농사일에 한층더욱 힘있게 나서게 하였다. 리당위원회는 농장의 실정에 맞게 실리있는 자력갱생기지를 꾸려 중소농기구 10여대에 수확기를 수리하거나 생산하였으며 초급일군들이 앞장서서 농기계수리를 제때에 끝내고 가동률을 높일수 있게 하였다. 은천군 마영현농동농장 당조직에서는 당일군들과 관리일군들이 펼쳐나 트라포르수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맡아 보장할에 대한 공공조직 사업을 한 다음 일군들이 모범을 보이도록 함으로써 수리기일을 제때에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일군들은 내부예비를 탐

우리 식이 제일이다

◇ 최근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새로 나온 노래 《사회주의 멋이래》가 널리 불리고 있다. 비닐논이 폭포처럼 쏟아지니 멋이래 사회주의 멋이래... 어찌 그뿐이랴. 도처에 사회주의선경이 펼쳐지고있으며 21세기 본보기공정장이 수없이 일떠서고있다. 하나하나 새길수록 가슴속엔 이 거창한 전변과 기적들이 그처럼 소중하고 위대할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 식, 우리 힘으로 이루어진것이기에... 우리가 순간이라도 남의 도움을 기대했다면 오늘과 같은 높은 존엄과 승리의 상상력을 열지 못했을것이다. 자기 식으로 미래를 개척하고 자기 힘으로 행복을 창조해나가는데 혁명하는 것이 있고 변영의 지름길이 있다. ◇ 《우리 식대로 살아가자!》, 이 구호는 우리의 철학을 가요화하였다. 《사회주의 멋이래!》, 이 노래야말로 우리 식, 우리 힘으로 주체의 사회주의를 빛내이고 이 땅위에 거머잡고 강성대국무도현을 펼쳐놓으려는 우리 인민의 강렬한 지향을 담고있는 노래가 아니겠는가. ◇ 우리 식은 승리와도 변영이며 미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식은 곧 주체식이며 우리에게 이보다 더 좋은 식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조국땅에서는 희한한 사변들이 연이어 일어나고있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3호》의 발사 성공을 축하하며 우리 식으로 착상하고 우리 식으로 실현해나가는 한나

희천발전소발전설비생산 힘있게 추진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

메를 더욱 바삭 조이고 발전설비생산투쟁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은 발전설비생산의 단계별목표와 중시과제를 바로 정하고 그 수행을 위한 세차한 공격전을 벌이고있다. 당면하여 이곳 일군들은 발전소건설장에서 발전기설기초 콘크리트기둥이 지장이 없도록 회리설제작을 앞당겨 끝내기 위한 투쟁에 기업소적인 힘을 집중하고있다. 능력이 있는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로 설비보수능력이 꾸러지고 그들이 핵심이 되어 플라즈마절단기술 비롯한 절단설비들을 정비보수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 결과 제반부문에 걸당능력이 훨씬 개선되는 성과가 이루어졌다. 보아리제관직장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이 회천1호발전소 회리설제작업에 전부 끝내는

만족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제23작업반, 용접작업반들도 회리설제작업에 앞장서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여 제관기일을 단축하는데 적극 기여하고있다. 발전설비제작업에서 지난 시기보다 높은 속도를 창조하였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 회천발전소 발전설비생산은 다그치기 위한 불바람이 세차게 일고 있다. 절단공작부의 가동률을 높여 짧은 기간에 보아리제관직장에 보낸 회리설제작업생산과제를 결속한 직장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기세충천하여 회천2호발전소의 마지막회리설제작업을 다그치고있다. 언제나 혁신의 앞장에서 달려나가는 제23작업반원들이 새로운 회리설제작법을 창안도입하여 작업조건을 개선하면서 도 조립기일을 증진보다 훨씬



새로운 생산공정을 따라 쉬임없이 흘러나오는 비닐론 본사기자 김 종 훈 특

동평양화력발전소의 일군들과 전력생산자들이 공동수입과 공동구호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전력생산투쟁을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력은 현대산업의 기본동력이며 전력생산은 늘이는것은 오늘 나라의 경제전선에서 절대 양양을 일으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건적문제로서 나설수 있다.》 발전소의 일군들과 전력생산자들은 1. 4분기예 중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높이 세운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한

더 많은 전력을 발전소에서

기세로 파급한 공격전을 벌리고있다.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발전소참모부에서는 과학적인 발전계획체계를 세워 발전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는것을 전력생산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고있다. 발전소참모부에서는 컴퓨터와 경영정보시스템의 기술자들이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발전설비들의 가동상태를 빠짐없이 장악하고 과학적인 자료들을 종합지형설에 보내주게 하고있다. 그리하여 지체없이, 기사장을 비롯한 생산자도일군들이

어 전력생산은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나가고있다. 노동자들의 열의가 높아지는데 따라 초급당위원회에서는 후방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면서 전력생산을 높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적극 안배하고있다. 발전소참모부에서는 기술자, 노동자들을 적극 발동하고 그들속에서 제기되는 창의고안과 기술혁신안, 합리화안들을 실현하여 연료와 자재들을 최대한으로 절약하면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쏟고있다. 발전소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의 헌신적 투쟁에 의하여 전력생산성과는 더욱 확대되고있다. 특파기자 최 재 남

정론

희천의 돌격대

희천발전소건설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우고있는 병사들이 받아안은 값높은 칭호를 새겨보며

구름도 쉬어넘는다는 방형산줄기의 이...

산허리를 휘감으며 아아하게 뻗어 오...

금방 발파되어 쏟아져내린듯 한 돌무...

신군면명령대로 것처럼 바쁘신 우리...

위대한 영웅들이여! 이땅에서 일하고...

《희천발전소건설장에 와보면 사람의...

강성대국건설의 돌격대가 여기에 있다...

소나무도 뿌리박지 못하는 칼벼랑에...

완공된 뉘런천건설을 찾았으면 그날...

하루만 지나면 4월 18일, 매일이든...

간단없이 쏟아지는 석수가 야전복을...

최고사령관동지, 기다렸습니다. 정말...

병원의 심심산중에서 자식들이 다 클...

장일우격대의 사령부 경위대원들과...

원호를자를 안고 온 안해들의 얼굴조차...

희천발전소건설장 현지지도도보고 방송...

병사들의 무수한 발자국자리와 구슬땀이...

부담치는 모진 고난과 시련을 웃음으로...

합력은 평평 내리는 그날 동지애의 노래...

높이 물길굴을 판통시키고 승리의 날을...

《이들이야말로 진짜 돌격대요. 돌격...

희천의 돌격대! 희천의 돌격대! 그렇게...

우리 장군님께서 온 세상에 보란듯이...

이 나라는 어머니누이 조국보위초소에...

나만 아들딸들을 생각하며 희천건설을...

이들은 돌가구가 훑날리는 침침한 굴속...

이것은 건설철사에 있어본적 없는 속도...

세상에 나서 착암기를 처음으로 손에...

이들은 돌가구가 훑날리는 침침한 굴속...

이것은 건설철사에 있어본적 없는 속도...

세상에 나서 착암기를 처음으로 손에...

이들은 돌가구가 훑날리는 침침한 굴속...

이것은 건설철사에 있어본적 없는 속도...

세상에 나서 착암기를 처음으로 손에...

이들은 돌가구가 훑날리는 침침한 굴속...

이것은 건설철사에 있어본적 없는 속도...

세상에 나서 착암기를 처음으로 손에...

이들은 돌가구가 훑날리는 침침한 굴속...

이것은 건설철사에 있어본적 없는 속도...

세상에 나서 착암기를 처음으로 손에...

이들은 돌가구가 훑날리는 침침한 굴속...

이것은 건설철사에 있어본적 없는 속도...

세상에 나서 착암기를 처음으로 손에...

누가 보지 못하는 깊은 땅속에서 비상...

그렇게 머리엔 익히고 손엔 익히며...

불과 몇m 되는 비좁은 굴속에서 그...

희천의 돌격대! 희천의 돌격대! 그렇게...

이 나라는 어머니누이 조국보위초소에...

나만 아들딸들을 생각하며 희천건설을...

이들은 돌가구가 훑날리는 침침한 굴속...

이것은 건설철사에 있어본적 없는 속도...

세상에 나서 착암기를 처음으로 손에...

이들은 돌가구가 훑날리는 침침한 굴속...

이것은 건설철사에 있어본적 없는 속도...

세상에 나서 착암기를 처음으로 손에...

이들은 돌가구가 훑날리는 침침한 굴속...

이것은 건설철사에 있어본적 없는 속도...

세상에 나서 착암기를 처음으로 손에...

이들은 돌가구가 훑날리는 침침한 굴속...

이것은 건설철사에 있어본적 없는 속도...

세상에 나서 착암기를 처음으로 손에...

이들은 돌가구가 훑날리는 침침한 굴속...

이것은 건설철사에 있어본적 없는 속도...

세상에 나서 착암기를 처음으로 손에...

이들은 돌가구가 훑날리는 침침한 굴속...

이것은 건설철사에 있어본적 없는 속도...

세상에 나서 착암기를 처음으로 손에...

영위투사들의 의리와 향심의 분출이었다...

《분대장! 분대장!》이라고 전투보고를...

희천의 돌격대! 희천의 돌격대! 그렇게...

이 나라는 어머니누이 조국보위초소에...

나만 아들딸들을 생각하며 희천건설을...

이들은 돌가구가 훑날리는 침침한 굴속...

이것은 건설철사에 있어본적 없는 속도...

세상에 나서 착암기를 처음으로 손에...

이들은 돌가구가 훑날리는 침침한 굴속...

이것은 건설철사에 있어본적 없는 속도...

세상에 나서 착암기를 처음으로 손에...

이들은 돌가구가 훑날리는 침침한 굴속...

이것은 건설철사에 있어본적 없는 속도...

세상에 나서 착암기를 처음으로 손에...

이들은 돌가구가 훑날리는 침침한 굴속...

이것은 건설철사에 있어본적 없는 속도...

세상에 나서 착암기를 처음으로 손에...

이들은 돌가구가 훑날리는 침침한 굴속...

이것은 건설철사에 있어본적 없는 속도...

세상에 나서 착암기를 처음으로 손에...

이들은 돌가구가 훑날리는 침침한 굴속...

이것은 건설철사에 있어본적 없는 속도...

세상에 나서 착암기를 처음으로 손에...

이들은 돌가구가 훑날리는 침침한 굴속...

칭호를 동시에 가진 군대의 이야기를...

《그래서요 우리가 살고있는가》라는...

희천의 돌격대! 희천의 돌격대! 그렇게...

이 나라는 어머니누이 조국보위초소에...

나만 아들딸들을 생각하며 희천건설을...

이들은 돌가구가 훑날리는 침침한 굴속...

이것은 건설철사에 있어본적 없는 속도...

세상에 나서 착암기를 처음으로 손에...

이들은 돌가구가 훑날리는 침침한 굴속...

이것은 건설철사에 있어본적 없는 속도...

세상에 나서 착암기를 처음으로 손에...

이들은 돌가구가 훑날리는 침침한 굴속...

이것은 건설철사에 있어본적 없는 속도...

세상에 나서 착암기를 처음으로 손에...

이들은 돌가구가 훑날리는 침침한 굴속...

이것은 건설철사에 있어본적 없는 속도...

세상에 나서 착암기를 처음으로 손에...

이들은 돌가구가 훑날리는 침침한 굴속...

이것은 건설철사에 있어본적 없는 속도...

세상에 나서 착암기를 처음으로 손에...

이들은 돌가구가 훑날리는 침침한 굴속...

이것은 건설철사에 있어본적 없는 속도...

세상에 나서 착암기를 처음으로 손에...

이들은 돌가구가 훑날리는 침침한 굴속...

끼는 속깊은 만아들이 되기 위하여...

《희천에서 만났습니다!》라는 절세...

희천의 돌격대! 희천의 돌격대! 그렇게...

이 나라는 어머니누이 조국보위초소에...

나만 아들딸들을 생각하며 희천건설을...

이들은 돌가구가 훑날리는 침침한 굴속...

이것은 건설철사에 있어본적 없는 속도...

세상에 나서 착암기를 처음으로 손에...

이들은 돌가구가 훑날리는 침침한 굴속...

이것은 건설철사에 있어본적 없는 속도...

세상에 나서 착암기를 처음으로 손에...

이들은 돌가구가 훑날리는 침침한 굴속...

이것은 건설철사에 있어본적 없는 속도...

세상에 나서 착암기를 처음으로 손에...

이들은 돌가구가 훑날리는 침침한 굴속...

이것은 건설철사에 있어본적 없는 속도...

세상에 나서 착암기를 처음으로 손에...

이들은 돌가구가 훑날리는 침침한 굴속...

이것은 건설철사에 있어본적 없는 속도...

세상에 나서 착암기를 처음으로 손에...

이들은 돌가구가 훑날리는 침침한 굴속...

이것은 건설철사에 있어본적 없는 속도...

세상에 나서 착암기를 처음으로 손에...

이들은 돌가구가 훑날리는 침침한 굴속...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군대가 오늘과 같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군대가 오늘과 같이...

실천으로 깨우쳐 주신 진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러한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내가...

당보를 통한 위대성교양

당보에 실린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활동소식을 독보하였다.

위대한 당의 건군업적을 끝없이 빛내여갈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

중요한 당적 사업으로 틀어쥔

선군혁명의 생명선

뜻깊은 건군절을 맞으며 연안 군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에 주체적건군사에 쌓아올린 철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더욱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창신하고 방법론있게 진행하고 있다. 하여 대중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주체적인 건군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도록 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조직들과 선전일군들은 당과 수령의 위대성전선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깊이 있게 하여야 합니다.》

군당위원회는 이 사업을 잘 하기 위하여 대중과 늘 어울려 일하며 생활하는 당초급선일군들을 적극 인입하였다.

군당위원회 선전선동부는 당초급선일군들의 수준도와 능력에 서로 다른 조건에 맞게 우선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벌려나갔다. 특히 건군절을 앞두고 군당위원회의 선전선동부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따라배우는 연구실들의 성원들로 해설경연을 조직한것은 그들의 수준을 높여주는 좋은 계기로 되었다.

연안군당위원회 사업에서

은 계기로 되었다. 사회주의의 생명은 곧 사상이며 당일군은 누구나 사상사업을 하여야 한다.

군당위원회는 이런 관점과 립장에서 사상사업을 매우 중시하고 당초급선일군들의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조직하고 전개해나갔다.

군당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령도 밑에 자주시대혁명무력건설의 특장적인 길을 개척하고 그 빛나는 모범을 창조해온 주체적인 혁명적무장력에 대하여 설득력있게 해설하는 등의 인내강진의 학습강사들과 강연강사들의 가슴을 무한히 격조시켰다.

당사상사업은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발동하는 과정이며 전당과 온 사회에 생기와 활력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당책임일군들이 이렇게 사상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힘있게 내미는 기풍은 당초급선일군들에게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새겨 주고 책임성을 발휘하게 하는 위대한 정치사업으로 되었다.

이렇게 되어 연안군에서는 근로자강연강사들과 군당위원회 직외강연강사들로 무어진 집중강연선전대활동이 활발히

벌어지게 되었다. 협동농장들의 작업반, 분조편을 순회하며 어버이수령님의 건군업적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의 위대성을 해설하는 이들의 화신적강연선전활동이 고무된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현일혁신을 창조하고있다.

건군업적을 끝없이 빛내이려는 신념과 의지의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실천활동에서 남김없이 발휘되어야 한다. 군당위원회는 불멸의 건군업적을 빛내이려는 사업을 실천과 결부하여 방법론있게 밀고나갔다. 긍정적모범을 적극 찾아내고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온 군에 원군미풍이 차넘치게 한것이 그 실례로 된다.

군직매점지배인을 비롯한 종업원들은 지난 20여년동안 원군사업을 잘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감사를 여러차례나 받아안았다. 군당위원회는 원군미풍영양소개관을 만들어놓고 이들의 소행을 소개하고 함께 의의나 모임이 진행될 때면 주석단에 앉히기도 하면서 그들을 적극 내세워주었다.

이 과정에 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그들의 모범을 따라 원군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되었다. 그들가운데는 발전협동농장 농장원 오운근동무도 있다. 지난 20여년동안 여러정보의 쓸모없던 땅을 개간하여 농장에 넘겨주고있는 그는 많은 알뜰을 생산하여 나라에 바친 선군시대 근로자이다.

은 군에 군사중시기풍이 차넘치는 가운데 원군미풍영양소 대열이 날이 늘어났다. 이와 함께 군당위원회에서는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혁명파업수행에서 높은 실적을 이룩하는것으로 만들어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보다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그리하여 올해공공사업과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후호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총공세가 더욱 힘있게 벌어져 훌륭한 성과들이 연이어 이룩되게 되었다.

선군정치의 위대한 생활력이 남김없이 파시되고있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주체적건군교양을 집중하여야 하며 경제건설에서 국방선전의 원칙을 지키고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야 한다.

당의 령도적역할은 온 사회에 총대중시기를 다해야 할것이다.

총대로 개척되고 전진해온 우리의 선군혁명력사는 당의 혁명한 령도밑에 백전백승을 떨쳐온 역사로 찬연히 빛나고있다. 오늘 우리 혁명은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수행의 위대한 전진기를 맞이하고있다. 사회주의강대국건설을 위한 총공세가 벌어지고있는 오늘날의 격조적인 현실은 당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선군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각급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당의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고 총대중시사상, 군사중시사상을 철저히 구현하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당의 령도적역할은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나라의 국방력을 더욱 굳건히 다지기 위한 결정적업무이다. 당의 령도는 인민군대의 생명이며 나라의 국방력도 당의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당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배두산혁명강군으로 철저히 준비시키며 나라의 방위력을 급성장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군대를 사상의 강군으로 더욱 역세게 준비시키며 조국보위와 경제건설, 문화정서생활 등 모든 면에서 본보기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당조직들을 강화하여야 한다.

국방공업은 비롯한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굳건히 다지는 사업에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하며 경제건설에서 국방선전의 원칙을 지키고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야 한다.

당의 령도적역할은 온 사회에 총대중시기를 다해야 할것이다.

총, 군사중시기풍을 세우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각급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당의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고 총대중시사상, 군사중시사상을 철저히 구현하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선군정치의 요구에 맞게 온 사회에 총대중시, 군사중시기풍이 차넘치도록 당조직정치사업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사상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힘있게 벌려 수령결사옹위정신을 핵으로 하는 혁명적군인정신을 온 나라에 차넘치게 함으로써 군대와 인민의 사상의 일치, 투쟁기풍과 생활기풍의 일치를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인민군대를 물심판적으로 원호하고 정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도와주는 기풍, 혁명적주요어의 미풍이 더욱 높이 발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강대국건설대전이 힘차게 벌어지는 격조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혁명과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키도록 당조직정치사업을 박력있게 벌림으로써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은 선군혁명승리의 생명선인 당의 영도를 백방으로 강화하여 배두산3대강정의 건군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당의 선군위업을 빛나게 실현하는데서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야 할것이다.

당의 령도적역할은 온 사회에 총대중시기를 다해야 할것이다.

어 심형진, 김성호, 리경호동무들을 비롯한 제대군인들이 한몸을 서슴없이 내내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은 화신병사들이다. 제대군인들의 심장은 이렇게 고동쳤다. 이런 불같은 격전의 나날속에 그들은 열염이 걸린 다던 작업기일을 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내고 전투장에 첫 용감불패를 날려다. 그것은 혁명적군인정신의 체현자들이 인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들이 터친 승리의 꽃보라,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기적의 불보라였다. 본사기자 최영길

어 심형진, 김성호, 리경호동무들을 비롯한 제대군인들이 한몸을 서슴없이 내내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은 화신병사들이다. 제대군인들의 심장은 이렇게 고동쳤다. 이런 불같은 격전의 나날속에 그들은 열염이 걸린 다던 작업기일을 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내고 전투장에 첫 용감불패를 날려다. 그것은 혁명적군인정신의 체현자들이 인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들이 터친 승리의 꽃보라,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기적의 불보라였다. 본사기자 최영길

신념으로 걷는 길

중앙동물원 원산동물분원 초급당위원회에서

중앙동물원 원산동물분원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원군길은 머뭇머뭇 수북 뜨겁다.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그들의 원군길은 말그대로 신념으로 걷는 참된 삶의 길이다.

분원종업원들이 원군사업에 더욱 분발하여나서게 된 계기가 있었다. 그것은 자그마한 염서 한장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지금 우리 인민은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고 인민군대를 친혈육과 같이 사랑하고 진심으로 도와주고있습니다.》

특기원동무가 분원초급당비서로 임명되어온지 얼마 되지 않아 한장의 편지가 초급당위원회로 날아왔다. 어느 한 대상건설에 참가한 인민군인들을 성의껏 원호한 한 종업원의 소행을 알려온 인민군부대 정치일군의 편지였다. 편지를 보는 초급당일군의 마음속에는 고마움이 앞섰다.

당시 분원앞에는 높아가는 인민들의 문화정서적요구에 맞게 동물사들을 훌륭히 개건하고 동물들의 사양관리와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에 올려세워야 할 과업이 나수하고있었다. 방대한 과업을 수행하려면 종업원들을 분발시켜야 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신심과 락관에 넘쳐 최후승리를 향하여 돌진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우리가 황해복도를 찾았을 때였다. 도의 일군들은 우리에게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연산군에 한번 가보십시오. <전기풍년>을 노래하며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설계하고 꽃피워가는 인민들의 활기에 넘친 모습을 지면에 담을수 있습니다.》

도일군들의 말은 우리의 가슴을 흥분으로 설레게 하였다. 자기들의 행복을 마음껏 설계하고 꽃피워가는 미려운 창조자들.

우리는 그들을 한시바삐 만나 보고싶은 충동을 금할수 없어 연산군을 향해 떠났다.

군에 도착한 우리는 그곳 일군들은 반겨맞아주었다. 《우리가 일떠세운 발전소부터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이 물음에 대답을 준것이 바로 그 편지였다.

며칠후 종업원모임이 열렸다. 정치일군의 편지가 광복되고 아름다운 소행의 주인공이 연하에 나섰던 그날 초급당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대에 의하여 목숨을 구원받은 사람이 왜 이 동무의 어머니만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행복의 보금자리에서 근심걱정이 없어야 할것이다. 다 인민군대원이 아니겠습니까. 원군은 나 자신, 나의 가정, 우리 분원을 위한 일입니다.》

모임이 있은 후 분원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곧 원군의 길을 떠났다. 지성이런 원호품을 안고 대상건설에 참가한 인민군인들을 찾아가는 종업원들의 발걸음엔 날개라도 돌친듯싶었다. 친부모이런듯, 친형제이런듯 달려와 안기는 인민군인들,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기 위한 백열전이 벌어지는 불꽃튀는 전투장... 바로 혁명적군인정신이 나뉘는 《교정》에서 종업원들은 많은것을 보고 느꼈다.

그날부터 원군길은 더욱 즐겁게 이어졌다. 국가적기념일이 나 명절날은 물론 분원에 《새식구》가 늘어나고 동물사 하나 개개전된 날이면 그 기쁨을 안고 군인들을 찾기도 하였다.

기행

제힘으로 행복의 락원을 꾸려가는 보람

들어보는것이 어떻습니까?》

말은 짧아도 거기에는 자체의 힘으로 발전소를 일떠세운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려있었다. 발전소를 향하여 경쾌하게 달리는 차안에서 군일군이 들려준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다.

《우리가 위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자체의 힘으로 수천kw의 발전능력을 가진 군민발전소를 일떠세웠습니다.》

어느날 우리의 눈앞에 희한한 발전소건물이 안겨들었다. 건물벽면에 금빛으로 새겨진 《연산군민발전소》라는 글밭에서 우리는 한동안 눈길을 땀수 없었다. 강성대국의 새

홍남가사회대상건설에 동원된 단천광업건설연합기업소 제대군인당원들에 대한 이야기는 참으로 감동적이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혁명적군인정신에서 기본은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희생정신입니다.》

이들이 홍남가사회대상건설에 첫발을 들여놓은것은 지난해 5월이었다. 당시 전투임무는 하루빨리 작업장을 정리하고 제관직에 진입하는것이였다. 그러자던 편관단위로부터 기증기를 시급히 옮겨와야

하였다. 무개가 50여에 달하는 그 육중한 기증기를 한대로 아니고 동시에 두대를 시급히 날라온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문제를 놓고 두가지 방안이 논의되였다. 하나는 종전의 방식대로 정해진 길을 따라 안전하게 기증기를 옮겨오는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방법을 받아들여 직선통로를 내면서 운반하자는것이였다. 첫 방안대로 하면 한달, 두 번째 방안대로 하면 열흘,

하지만 두번째 방안은 모험을 동반하는 매우 어려운 길이였다. 이때 제대군인당원들의 대담은 어찌했는가. 《한말을 우리 제대군인들의 배에 맞지 않습니다.》 두주먹을 내두르며 웨치는 김정일동무의 목소리는 제관직장 전투원들모두의 심정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당조직의 지도 밑에 두번째 방안대로 기증기를 날라오기 위한 격전이 시작되였다. 직장장 김정호동무의 호각소리에 맞추어 제대군인들

은 한치한치 육중한 기증기를 운반하는 전투를 벌였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였다. 레쿠가 모자라던 대응레쿠로, 기술이 모자라던 지혜를 합쳐가며 전투를 벌였다. 아슬아슬한 고비도 있었다. 목적지를 가까이하였을 때 기증기동체 밑에 고였던 굴렁대 빠지면서 기증기가 기울어지기 시작하였다. 바로 그 순간 다급한 웨침소리와 함께 김정호동무가 버팀목을 안고 기증기동체에 어깨를 들이밀었다. 그뒤를 이

어 심형진, 김성호, 리경호동무들을 비롯한 제대군인들이 한몸을 서슴없이 내내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은 화신병사들이다. 제대군인들의 심장은 이렇게 고동쳤다. 이런 불같은 격전의 나날속에 그들은 열염이 걸린 다던 작업기일을 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내고 전투장에 첫 용감불패를 날려다. 그것은 혁명적군인정신의 체현자들이 인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들이 터친 승리의 꽃보라,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기적의 불보라였다. 본사기자 최영길

어 심형진, 김성호, 리경호동무들을 비롯한 제대군인들이 한몸을 서슴없이 내내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은 화신병사들이다. 제대군인들의 심장은 이렇게 고동쳤다. 이런 불같은 격전의 나날속에 그들은 열염이 걸린 다던 작업기일을 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내고 전투장에 첫 용감불패를 날려다. 그것은 혁명적군인정신의 체현자들이 인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들이 터친 승리의 꽃보라,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기적의 불보라였다. 본사기자 최영길

어 심형진, 김성호, 리경호동무들을 비롯한 제대군인들이 한몸을 서슴없이 내내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은 화신병사들이다. 제대군인들의 심장은 이렇게 고동쳤다. 이런 불같은 격전의 나날속에 그들은 열염이 걸린 다던 작업기일을 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내고 전투장에 첫 용감불패를 날려다. 그것은 혁명적군인정신의 체현자들이 인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들이 터친 승리의 꽃보라,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기적의 불보라였다. 본사기자 최영길

어 심형진, 김성호, 리경호동무들을 비롯한 제대군인들이 한몸을 서슴없이 내내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은 화신병사들이다. 제대군인들의 심장은 이렇게 고동쳤다. 이런 불같은 격전의 나날속에 그들은 열염이 걸린 다던 작업기일을 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내고 전투장에 첫 용감불패를 날려다. 그것은 혁명적군인정신의 체현자들이 인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들이 터친 승리의 꽃보라,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기적의 불보라였다. 본사기자 최영길

어 심형진, 김성호, 리경호동무들을 비롯한 제대군인들이 한몸을 서슴없이 내내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은 화신병사들이다. 제대군인들의 심장은 이렇게 고동쳤다. 이런 불같은 격전의 나날속에 그들은 열염이 걸린 다던 작업기일을 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내고 전투장에 첫 용감불패를 날려다. 그것은 혁명적군인정신의 체현자들이 인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들이 터친 승리의 꽃보라,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기적의 불보라였다. 본사기자 최영길

어 심형진, 김성호, 리경호동무들을 비롯한 제대군인들이 한몸을 서슴없이 내내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은 화신병사들이다. 제대군인들의 심장은 이렇게 고동쳤다. 이런 불같은 격전의 나날속에 그들은 열염이 걸린 다던 작업기일을 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내고 전투장에 첫 용감불패를 날려다. 그것은 혁명적군인정신의 체현자들이 인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들이 터친 승리의 꽃보라,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기적의 불보라였다. 본사기자 최영길

어 심형진, 김성호, 리경호동무들을 비롯한 제대군인들이 한몸을 서슴없이 내내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은 화신병사들이다. 제대군인들의 심장은 이렇게 고동쳤다. 이런 불같은 격전의 나날속에 그들은 열염이 걸린 다던 작업기일을 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내고 전투장에 첫 용감불패를 날려다. 그것은 혁명적군인정신의 체현자들이 인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들이 터친 승리의 꽃보라,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기적의 불보라였다. 본사기자 최영길

어 심형진, 김성호, 리경호동무들을 비롯한 제대군인들이 한몸을 서슴없이 내내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은 화신병사들이다. 제대군인들의 심장은 이렇게 고동쳤다. 이런 불같은 격전의 나날속에 그들은 열염이 걸린 다던 작업기일을 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내고 전투장에 첫 용감불패를 날려다. 그것은 혁명적군인정신의 체현자들이 인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들이 터친 승리의 꽃보라,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기적의 불보라였다. 본사기자 최영길

어 심형진, 김성호, 리경호동무들을 비롯한 제대군인들이 한몸을 서슴없이 내내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은 화신병사들이다. 제대군인들의 심장은 이렇게 고동쳤다. 이런 불같은 격전의 나날속에 그들은 열염이 걸린 다던 작업기일을 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내고 전투장에 첫 용감불패를 날려다. 그것은 혁명적군인정신의 체현자들이 인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들이 터친 승리의 꽃보라,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기적의 불보라였다. 본사기자 최영길

어 심형진, 김성호, 리경호동무들을 비롯한 제대군인들이 한몸을 서슴없이 내내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은 화신병사들이다. 제대군인들의 심장은 이렇게 고동쳤다. 이런 불같은 격전의 나날속에 그들은 열염이 걸린 다던 작업기일을 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내고 전투장에 첫 용감불패를 날려다. 그것은 혁명적군인정신의 체현자들이 인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들이 터친 승리의 꽃보라,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기적의 불보라였다. 본사기자 최영길

어 심형진, 김성호, 리경호동무들을 비롯한 제대군인들이 한몸을 서슴없이 내내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은 화신병사들이다. 제대군인들의 심장은 이렇게 고동쳤다. 이런 불같은 격전의 나날속에 그들은 열염이 걸린 다던 작업기일을 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내고 전투장에 첫 용감불패를 날려다. 그것은 혁명적군인정신의 체현자들이 인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들이 터친 승리의 꽃보라,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기적의 불보라였다. 본사기자 최영길

어 심형진, 김성호, 리경호동무들을 비롯한 제대군인들이 한몸을 서슴없이 내내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은 화신병사들이다. 제대군인들의 심장은 이렇게 고동쳤다. 이런 불같은 격전의 나날속에 그들은 열염이 걸린 다던 작업기일을 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내고 전투장에 첫 용감불패를 날려다. 그것은 혁명적군인정신의 체현자들이 인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들이 터친 승리의 꽃보라,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기적의 불보라였다. 본사기자 최영길

어 심형진, 김성호, 리경호동무들을 비롯한 제대군인들이 한몸을 서슴없이 내내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은 화신병사들이다. 제대군인들의 심장은 이렇게 고동쳤다. 이런 불같은 격전의 나날속에 그들은 열염이 걸린 다던 작업기일을 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내고 전투장에 첫 용감불패를 날려다. 그것은 혁명적군인정신의 체현자들이 인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들이 터친 승리의 꽃보라,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기적의 불보라였다. 본사기자 최영길

어 심형진, 김성호, 리경호동무들을 비롯한 제대군인들이 한몸을 서슴없이 내내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은 화신병사들이다. 제대군인들의 심장은 이렇게 고동쳤다. 이런 불같은 격전의 나날속에 그들은 열염이 걸린 다던 작업기일을 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내고 전투장에 첫 용감불패를 날려다. 그것은 혁명적군인정신의 체현자들이 인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들이 터친 승리의 꽃보라,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기적의 불보라였다. 본사기자 최영길

어 심형진, 김성호, 리경호동무들을 비롯한 제대군인들이 한몸을 서슴없이 내내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은 화신병사들이다. 제대군인들의 심장은 이렇게 고동쳤다. 이런 불같은 격전의 나날속에 그들은 열염이 걸린 다던 작업기일을 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내고 전투장에 첫 용감불패를 날려다. 그것은 혁명적군인정신의 체현자들이 인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들이 터친 승리의 꽃보라,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기적의 불보라였다. 본사기자 최영길

어 심형진, 김성호, 리경호동무들을 비롯한 제대군인들이 한몸을 서슴없이 내내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은 화신병사들이다. 제대군인들의 심장은 이렇게 고동쳤다. 이런 불같은 격전의 나날속에 그들은 열염이 걸린 다던 작업기일을 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내고 전투장에 첫 용감불패를 날려다. 그것은 혁명적군인정신의 체현자들이 인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들이 터친 승리의 꽃보라,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기적의 불보라였다. 본사기자 최영길

어 심형진, 김성호, 리경호동무들을 비롯한 제대군인들이 한몸을 서슴없이 내내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은 화신병사들이다. 제대군인들의 심장은 이렇게 고동쳤다. 이런 불같은 격전의 나날속에 그들은 열염이 걸린 다던 작업기일을 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내고 전투장에 첫 용감불패를 날려다. 그것은 혁명적군인정신의 체현자들이 인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들이 터친 승리의 꽃보라,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기적의 불보라였다. 본사기자 최영길

어 심형진, 김성호, 리경호동무들을 비롯한 제대군인들이 한몸을 서슴없이 내내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은 화신병사들이다. 제대군인들의 심장은 이렇게 고동쳤다. 이런 불같은 격전의 나날속에 그들은 열염이 걸린 다던 작업기일을 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내고 전투장에 첫 용감불패를 날려다. 그것은 혁명적군인정신의 체현자들이 인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들이 터친 승리의 꽃보라,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기적의 불보라였다. 본사기자 최영길

어 심형진, 김성호, 리경호동무들을 비롯한 제대군인들이 한몸을 서슴없이 내내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은 화신병사들이다. 제대군인들의 심장은 이렇게 고동쳤다. 이런 불같은 격전의 나날속에 그들은 열염이 걸린 다던 작업기일을 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내고 전투장에 첫 용감불패를 날려다. 그것은 혁명적군인정신의 체현자들이 인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들이 터친 승리의 꽃보라,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기적의 불보라였다. 본사기자 최영길

어 심형진, 김성호, 리경호동무들을 비롯한 제대군인들이 한몸을 서슴없이 내내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은 화신병사들이다. 제대군인들의 심장은 이렇게 고동쳤다. 이런 불같은 격전의 나날속에 그들은 열염이 걸린 다던 작업기일을 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내고 전투장에 첫 용감불패를 날려다. 그것은 혁명적군인정신의 체현자들이 인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들이 터친 승리의 꽃보라,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기적의 불보라였다. 본사기자 최영길

어 심형진, 김성호, 리경호동무들을 비롯한 제대군인들이 한몸을 서슴없이 내내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은 화신병사들이다. 제대군인들의 심장은 이렇게 고동쳤다. 이런 불같은 격전의 나날속에 그들은 열염이 걸린 다던 작업기일을 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내고 전투장에 첫 용감불패를 날려다. 그것은 혁명적군인정신의 체현자들이 인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들이 터친 승리의 꽃보라,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기적의 불보라였다. 본사기자 최영길

어 심형진, 김성호, 리경호동무들을 비롯한 제대군인들이 한몸을 서슴없이 내내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은 화신병사들이다. 제대군인들의 심장은 이렇게 고동쳤다. 이런 불같은 격전의 나날속에 그들은 열염이 걸린 다던 작업기일을 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내고 전투장에 첫 용감불패를 날려다. 그것은 혁명적군인정신의 체현자들이 인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들이 터친 승리의 꽃보라,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기적의 불보라였다. 본사기자 최영길

어 심형진, 김성호, 리경호동무들을 비롯한 제대군인들이 한몸을 서슴없이 내내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은 화신병사들이다. 제대군인들의 심장은 이렇게 고동쳤다. 이런 불같은 격전의 나날속에 그들은 열염이 걸린 다던 작업기일을 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내고 전투장에 첫 용감불패를 날려다. 그것은 혁명적군인정신의 체현자들이 인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들이 터친 승리의 꽃보라,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기적의 불보라였다. 본사기자 최영길

어 심형진, 김성호, 리경호동무들을 비롯한 제대군인들이 한몸을 서슴없이 내내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은 화신병사들이다. 제대군인들의 심장은 이렇게 고동쳤다. 이런 불같은 격전의 나날속에 그들은 열염이 걸린 다던 작업기일을 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내고 전투장에 첫 용감불패를 날려다. 그것은 혁명적군인정신의 체현자들이 인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들이 터친 승리의 꽃보라,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기적의 불보라였다. 본사기자 최영길

어 심형진, 김성호, 리경호동무들을 비롯한 제대군인들이 한몸을 서슴없이 내내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은 화신병사들이다. 제대군인들의 심장은 이렇게 고동쳤다. 이런 불같은 격전의 나날속에 그들은 열염이 걸린 다던 작업기일을 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내고 전투장에 첫 용감불패를 날려다. 그것은 혁명적군인정신의 체현자들이 인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들이 터친 승리의 꽃보라,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기적의 불보라였다. 본사기자 최영길

어 심형진, 김성호, 리경호동무들을 비롯한 제대군인들이 한몸을 서슴없이 내내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은 화신병사들이다. 제대군인들의 심장은 이렇게 고동쳤다. 이런 불같은 격전의 나날속에 그들은 열염이 걸린 다던 작업기일을 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내고 전투장에 첫 용감불패를 날려다. 그것은 혁명적군인정신의 체현자들이 인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들이 터친 승리의 꽃보라,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기적의 불보라였다. 본사기자 최영길

어 심형진, 김성호, 리경호동무들을 비롯한 제대군인들이 한몸을 서슴없이 내내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은 화신병사들이다. 제대군인들의 심장은 이렇게 고동쳤다. 이런 불같은 격전의 나날속에 그들은 열염이 걸린 다던 작업기일을 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내고 전투장에 첫 용감불패를 날려다. 그것은 혁명적군인정신의 체현자들이 인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들이 터친 승리의 꽃보라,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기적의 불보라였다. 본사기자 최영길

어 심형진, 김성호, 리경호동무들을 비롯한 제대군인들이 한몸을 서슴없이 내내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은 화신병사들이다. 제대군인들의 심장은 이렇게 고동쳤다. 이런 불같은 격전의 나날속에 그들은 열염이 걸린 다던 작업기일을 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내고 전투장에 첫 용감불패를 날려다. 그것은 혁명적군인정신의 체현자들이 인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들이 터친 승리의 꽃보라,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기적의 불보라였다. 본사기자 최영길

어 심형진, 김성호, 리경호동무들을 비롯한 제대군인들이 한몸을 서슴없이 내내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은 화신병사들이다. 제대군인들의 심장은 이렇게 고동쳤다. 이런 불같은 격전의 나날속에 그들은 열염이 걸린 다던 작업기일을 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내고 전투장에 첫 용감불패를 날려다. 그것은 혁명적군인정신의 체현자들이 인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들이 터친 승리의 꽃보라,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기적의 불보라였다. 본사기자 최영길

어 심형진, 김성호, 리경호동무들을 비롯한 제대군인들이 한몸을 서슴없이 내내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은 화신병사들이다. 제대군인들의 심장은 이렇게 고동쳤다. 이런 불같은 격전의 나날속에 그들은 열염이 걸린 다던 작업기일을 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내고 전투장에 첫 용감불패를 날려다. 그것은 혁명적군인정신의 체현자들이 인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들이 터친 승리의 꽃보라,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기적의 불보라였다. 본사기자 최영길

어 심형진, 김성호, 리경호동무들을 비롯한 제대군인들이 한몸

값 높은 삶은 창조와 투쟁속에 있다

통성영에 군인사출장화공장 지배인 김윤환동무

조국을 지켜 피흘린 우리의 영예군인들은 어제날의 군공도 오늘의 위훈속에 빛나야 한다. 숭고한 인생관을 지니고 강성대국건설에서 혁명의 뜻을 계속 피워가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영예군인들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희생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싸운 당의 전사들입니다.》

통성영에 군인사출장화공장 지배인 김윤환동무는 철석의 신념과 건인불발의 의지로 불과 몇해동안에 공장을 인민생활 향상에서 한평 단단히 하는

힘있는 공장으로, 제법으로 걸어가게 자력갱생본보기단위로 일떠세웠다.

영예군인, 그 부름과 더불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영원한 병사라는 높은 자각은 김윤환동무로 하여금 쓰러지면 얼뭍히 다시 일어나게 하는 의지의 원천으로, 난관을 뚫고 전진하는 투쟁대오에서 수령의 전사, 당의 전사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게 하는 신념의 뿌리로 되었다.

앞에 다시금 울려왔던 것이다. 다음날부터 그는 경비선원으로서의 임무를 착실히 수행하는 한편, 짬나는데로 부지런히 책을 읽었다. 당에서 있는 여러가지 기계의 속내를 파악하고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애를 썼다. 그리고 공장에 한가 지라도 보탬을 주려고 하루일을 마친 후엔 집으로가 아니라 생산현장에 달려가 기계를 점검 하였다.

일욕심이 많고 탐구심이 강한 그를 당조직에서는 신의주 영예군인학원을 추천하였다. 당의 은총으로 공부를 마치고 7년제 당의 믿음과 기대속에 한해 공장사업을 맡게 되었을 때 김윤환동무는 어깨가 무거워 지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하면 당의 믿음에 보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자리에 누워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는 공장의 설비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면서 하나의 생각을 거듭하였다.

(현실의 요구에 맞게 공장이 인민생활향상에 보다 적극 이바지하게 하려면 우선 생산품종부터 바꾸어야 한다. 동시에 설비도 갱신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하면 인력, 자금까지의 품종과 설비를 가지고 오물조물

타산하지 말고 화선병사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통이 크게 작전하고 전투적으로 실천하자.)

그는 사출장화공정을 새로 꾸밀것을 결심하였다. 그때 김윤환동무는 종업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인민들을 세상에 보란 듯이 내세우려는 것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입니다. 우리 영예군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라면 둘어에도 꽃을 피우고 바다도 통째로 메울것입니다.》

병사로서의 투지를 안고 김윤환동무는 종업원들을 불러일으켜 새로운 사출장화생산공정을 꾸려나갔다. 근 10대나 되는 설비들도 자제로 만들어내었다.

크지 않은 공장에서 설계와 자체보장, 가공을 다 자제로 하면서 설비를 만들어내는데는 어려운 일이었다. 설비제작에서 실적이 거둬지자 손맥을 놓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때마다 김윤환동무는 종업원들을 힘있게 고무하였다.

《우리는 지금 전투를 하고있소. 일을 해도 총을 잡고 화선에 선 그런 정신으로 해야 하소. 그걸로 혁명의 꽃을 계속 피울수 있소.》

그는 종업원들과 함께 수십 번의 실패에도 물러서지 않고 끝내 성취를 비로한 설비들을 차례의 힘으로 갖추어놓았다.

이것이 항상 강하게 내세우는 요구였다. 그때에도 그는 그 강화를 다시 생산하라고 지시하였지만 생각은 깊었다. —제품의 질을 높이자면 결정적으로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김윤환동무는 관리인들로부터 로동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학습을 주요전투과업으로 내세웠다.

지배인의 손에서는 책이 떨어질 줄 몰랐다. 그는 자신이 기술학습에 앞장설뿐 아니라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한 여러 곳을 다니며 필요한 기술서적들을 구해다 기술자들에게 안겨주었다. 그리고 관리인들에게 이 현장에 나가 로동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게 하는 혁신적태도를 취하였다.

높은 요구성과 아까운 실선은 훌륭한 열매를 맺었다. 공장은 현대적인 설비들을 그치지 않고 계속 갖추어 나감에 따라 김윤환동무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웅변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하여 복무함!

그의 가슴속에는 수평결사대의 제일선에 화선병사의 의지로 살며 투쟁할 때만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울수 있다는 신념이 더욱 억척스럽게 뿌리내렸다.

《병사는 살아도 화선에서 살아야 하고 쓰러져도 화선에서 쓰러져야 하소.》

지평이를 잡고 건설현장에 다시 나타난 지배인을 둘러싸며 종업원들은 뜨거운것을 삼키었다. 그들에게 김윤환동무는 웃으며 말하였다.

《우리가 영예군인이 아니요. 열면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는 화선병사의 그 투지로 돌격합시다.》

2층짜리 덩실한 건물을 끝내 제법으로 훌륭하게 일떠세운 날 공지와 보람을 가슴 벅차게 느끼며 종업원들은

《정양 4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평양시에서 진행된 제1차 전국의료기구전시회 진행

【평양 4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제1차 전국의료기구전시회가 19일부터 23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기계공장에서 의료설비를 한가지씩 만드는 운동은 별례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훈과 당의 보건정책을 받들고 기계공업성, 보건성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과 공장, 기업소, 과학연구기관에서 의료설비, 기구생산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70여개 단위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과학자들이 창조적성과 열정을 발휘하여 창안제작한 110여종의 140여종의 각종 의료설비와 기구, 재료들이 출품되었다.

만경대엔드겐공장, 함흥영예군인교정기구공장, 평양연마시공장, 신의주비철기구공장 등에서 내놓은 구강엔드겐장치, 초음파용접기, 박막식혈액, 이빨이식공구를 비롯한 전시품들은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첨단기술이 도입된 인공심장박동조종기, 인식과패기, 초

《영예군인들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희생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싸운 당의 전사들입니다.》

통성영에 군인사출장화공장 지배인 김윤환동무는 철석의 신념과 건인불발의 의지로 불과 몇해동안에 공장을 인민생활 향상에서 한평 단단히 하는

힘있는 공장으로, 제법으로 걸어가게 자력갱생본보기단위로 일떠세웠다.

영예군인, 그 부름과 더불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영원한 병사라는 높은 자각은 김윤환동무로 하여금 쓰러지면 얼뭍히 다시 일어나게 하는 의지의 원천으로, 난관을 뚫고 전진하는 투쟁대오에서 수령의 전사, 당의 전사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게 하는 신념의 뿌리로 되었다.

앞에 다시금 울려왔던 것이다. 다음날부터 그는 경비선원으로서의 임무를 착실히 수행하는 한편, 짬나는데로 부지런히 책을 읽었다. 당에서 있는 여러가지 기계의 속내를 파악하고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애를 썼다. 그리고 공장에 한가 지라도 보탬을 주려고 하루일을 마친 후엔 집으로가 아니라 생산현장에 달려가 기계를 점검 하였다.

일욕심이 많고 탐구심이 강한 그를 당조직에서는 신의주 영예군인학원을 추천하였다. 당의 은총으로 공부를 마치고 7년제 당의 믿음과 기대속에 한해 공장사업을 맡게 되었을 때 김윤환동무는 어깨가 무거워 지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하면 당의 믿음에 보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자리에 누워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는 공장의 설비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면서 하나의 생각을 거듭하였다.

(현실의 요구에 맞게 공장이 인민생활향상에 보다 적극 이바지하게 하려면 우선 생산품종부터 바꾸어야 한다. 동시에 설비도 갱신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하면 인력, 자금까지의 품종과 설비를 가지고 오물조물

타산하지 말고 화선병사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통이 크게 작전하고 전투적으로 실천하자.)

그는 사출장화공정을 새로 꾸밀것을 결심하였다. 그때 김윤환동무는 종업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인민들을 세상에 보란 듯이 내세우려는 것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입니다. 우리 영예군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라면 둘어에도 꽃을 피우고 바다도 통째로 메울것입니다.》

병사로서의 투지를 안고 김윤환동무는 종업원들을 불러일으켜 새로운 사출장화생산공정을 꾸려나갔다. 근 10대나 되는 설비들도 자제로 만들어내었다.

크지 않은 공장에서 설계와 자체보장, 가공을 다 자제로 하면서 설비를 만들어내는데는 어려운 일이었다. 설비제작에서 실적이 거둬지자 손맥을 놓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때마다 김윤환동무는 종업원들을 힘있게 고무하였다.

《우리는 지금 전투를 하고있소. 일을 해도 총을 잡고 화선에 선 그런 정신으로 해야 하소. 그걸로 혁명의 꽃을 계속 피울수 있소.》

그는 종업원들과 함께 수십 번의 실패에도 물러서지 않고 끝내 성취를 비로한 설비들을 차례의 힘으로 갖추어놓았다.

이것이 항상 강하게 내세우는 요구였다. 그때에도 그는 그 강화를 다시 생산하라고 지시하였지만 생각은 깊었다. —제품의 질을 높이자면 결정적으로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김윤환동무는 관리인들로부터 로동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학습을 주요전투과업으로 내세웠다.

지배인의 손에서는 책이 떨어질 줄 몰랐다. 그는 자신이 기술학습에 앞장설뿐 아니라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한 여러 곳을 다니며 필요한 기술서적들을 구해다 기술자들에게 안겨주었다. 그리고 관리인들에게 이 현장에 나가 로동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게 하는 혁신적태도를 취하였다.

높은 요구성과 아까운 실선은 훌륭한 열매를 맺었다. 공장은 현대적인 설비들을 그치지 않고 계속 갖추어 나감에 따라 김윤환동무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웅변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하여 복무함!

그의 가슴속에는 수평결사대의 제일선에 화선병사의 의지로 살며 투쟁할 때만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울수 있다는 신념이 더욱 억척스럽게 뿌리내렸다.

《병사는 살아도 화선에서 살아야 하고 쓰러져도 화선에서 쓰러져야 하소.》

지평이를 잡고 건설현장에 다시 나타난 지배인을 둘러싸며 종업원들은 뜨거운것을 삼키었다. 그들에게 김윤환동무는 웃으며 말하였다.

《우리가 영예군인이 아니요. 열면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는 화선병사의 그 투지로 돌격합시다.》

2층짜리 덩실한 건물을 끝내 제법으로 훌륭하게 일떠세운 날 공지와 보람을 가슴 벅차게 느끼며 종업원들은

《정양 4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평양시에서 진행된 제1차 전국의료기구전시회 진행

【평양 4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제1차 전국의료기구전시회가 19일부터 23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기계공장에서 의료설비를 한가지씩 만드는 운동은 별례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훈과 당의 보건정책을 받들고 기계공업성, 보건성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과 공장, 기업소, 과학연구기관에서 의료설비, 기구생산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70여개 단위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과학자들이 창조적성과 열정을 발휘하여 창안제작한 110여종의 140여종의 각종 의료설비와 기구, 재료들이 출품되었다.

만경대엔드겐공장, 함흥영예군인교정기구공장, 평양연마시공장, 신의주비철기구공장 등에서 내놓은 구강엔드겐장치, 초음파용접기, 박막식혈액, 이빨이식공구를 비롯한 전시품들은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첨단기술이 도입된 인공심장박동조종기, 인식과패기, 초

《정양 4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평양시에서 진행된 제1차 전국의료기구전시회 진행

【평양 4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제1차 전국의료기구전시회가 19일부터 23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기계공장에서 의료설비를 한가지씩 만드는 운동은 별례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훈과 당의 보건정책을 받들고 기계공업성, 보건성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과 공장, 기업소, 과학연구기관에서 의료설비, 기구생산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70여개 단위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과학자들이 창조적성과 열정을 발휘하여 창안제작한 110여종의 140여종의 각종 의료설비와 기구, 재료들이 출품되었다.

만경대엔드겐공장, 함흥영예군인교정기구공장, 평양연마시공장, 신의주비철기구공장 등에서 내놓은 구강엔드겐장치, 초음파용접기, 박막식혈액, 이빨이식공구를 비롯한 전시품들은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첨단기술이 도입된 인공심장박동조종기, 인식과패기, 초

《영예군인들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희생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싸운 당의 전사들입니다.》

통성영에 군인사출장화공장 지배인 김윤환동무는 철석의 신념과 건인불발의 의지로 불과 몇해동안에 공장을 인민생활 향상에서 한평 단단히 하는

힘있는 공장으로, 제법으로 걸어가게 자력갱생본보기단위로 일떠세웠다.

영예군인, 그 부름과 더불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영원한 병사라는 높은 자각은 김윤환동무로 하여금 쓰러지면 얼뭍히 다시 일어나게 하는 의지의 원천으로, 난관을 뚫고 전진하는 투쟁대오에서 수령의 전사, 당의 전사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게 하는 신념의 뿌리로 되었다.

앞에 다시금 울려왔던 것이다. 다음날부터 그는 경비선원으로서의 임무를 착실히 수행하는 한편, 짬나는데로 부지런히 책을 읽었다. 당에서 있는 여러가지 기계의 속내를 파악하고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애를 썼다. 그리고 공장에 한가 지라도 보탬을 주려고 하루일을 마친 후엔 집으로가 아니라 생산현장에 달려가 기계를 점검 하였다.

일욕심이 많고 탐구심이 강한 그를 당조직에서는 신의주 영예군인학원을 추천하였다. 당의 은총으로 공부를 마치고 7년제 당의 믿음과 기대속에 한해 공장사업을 맡게 되었을 때 김윤환동무는 어깨가 무거워 지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하면 당의 믿음에 보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자리에 누워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는 공장의 설비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면서 하나의 생각을 거듭하였다.

(현실의 요구에 맞게 공장이 인민생활향상에 보다 적극 이바지하게 하려면 우선 생산품종부터 바꾸어야 한다. 동시에 설비도 갱신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하면 인력, 자금까지의 품종과 설비를 가지고 오물조물

타산하지 말고 화선병사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통이 크게 작전하고 전투적으로 실천하자.)

그는 사출장화공정을 새로 꾸밀것을 결심하였다. 그때 김윤환동무는 종업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인민들을 세상에 보란 듯이 내세우려는 것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입니다. 우리 영예군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라면 둘어에도 꽃을 피우고 바다도 통째로 메울것입니다.》

병사로서의 투지를 안고 김윤환동무는 종업원들을 불러일으켜 새로운 사출장화생산공정을 꾸려나갔다. 근 10대나 되는 설비들도 자제로 만들어내었다.

크지 않은 공장에서 설계와 자체보장, 가공을 다 자제로 하면서 설비를 만들어내는데는 어려운 일이었다. 설비제작에서 실적이 거둬지자 손맥을 놓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때마다 김윤환동무는 종업원들을 힘있게 고무하였다.

《우리는 지금 전투를 하고있소. 일을 해도 총을 잡고 화선에 선 그런 정신으로 해야 하소. 그걸로 혁명의 꽃을 계속 피울수 있소.》

그는 종업원들과 함께 수십 번의 실패에도 물러서지 않고 끝내 성취를 비로한 설비들을 차례의 힘으로 갖추어놓았다.

이것이 항상 강하게 내세우는 요구였다. 그때에도 그는 그 강화를 다시 생산하라고 지시하였지만 생각은 깊었다. —제품의 질을 높이자면 결정적으로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김윤환동무는 관리인들로부터 로동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학습을 주요전투과업으로 내세웠다.

지배인의 손에서는 책이 떨어질 줄 몰랐다. 그는 자신이 기술학습에 앞장설뿐 아니라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한 여러 곳을 다니며 필요한 기술서적들을 구해다 기술자들에게 안겨주었다. 그리고 관리인들에게 이 현장에 나가 로동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게 하는 혁신적태도를 취하였다.

높은 요구성과 아까운 실선은 훌륭한 열매를 맺었다. 공장은 현대적인 설비들을 그치지 않고 계속 갖추어 나감에 따라 김윤환동무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웅변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하여 복무함!

그의 가슴속에는 수평결사대의 제일선에 화선병사의 의지로 살며 투쟁할 때만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울수 있다는 신념이 더욱 억척스럽게 뿌리내렸다.

《병사는 살아도 화선에서 살아야 하고 쓰러져도 화선에서 쓰러져야 하소.》

지평이를 잡고 건설현장에 다시 나타난 지배인을 둘러싸며 종업원들은 뜨거운것을 삼키었다. 그들에게 김윤환동무는 웃으며 말하였다.

《우리가 영예군인이 아니요. 열면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는 화선병사의 그 투지로 돌격합시다.》

2층짜리 덩실한 건물을 끝내 제법으로 훌륭하게 일떠세운 날 공지와 보람을 가슴 벅차게 느끼며 종업원들은

《정양 4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평양시에서 진행된 제1차 전국의료기구전시회 진행

【평양 4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제1차 전국의료기구전시회가 19일부터 23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기계공장에서 의료설비를 한가지씩 만드는 운동은 별례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훈과 당의 보건정책을 받들고 기계공업성, 보건성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과 공장, 기업소, 과학연구기관에서 의료설비, 기구생산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70여개 단위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과학자들이 창조적성과 열정을 발휘하여 창안제작한 110여종의 140여종의 각종 의료설비와 기구, 재료들이 출품되었다.

만경대엔드겐공장, 함흥영예군인교정기구공장, 평양연마시공장, 신의주비철기구공장 등에서 내놓은 구강엔드겐장치, 초음파용접기, 박막식혈액, 이빨이식공구를 비롯한 전시품들은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첨단기술이 도입된 인공심장박동조종기, 인식과패기, 초

《정양 4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평양시에서 진행된 제1차 전국의료기구전시회 진행

【평양 4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제1차 전국의료기구전시회가 19일부터 23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기계공장에서 의료설비를 한가지씩 만드는 운동은 별례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훈과 당의 보건정책을 받들고 기계공업성, 보건성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과 공장, 기업소, 과학연구기관에서 의료설비, 기구생산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70여개 단위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과학자들이 창조적성과 열정을 발휘하여 창안제작한 110여종의 140여종의 각종 의료설비와 기구, 재료들이 출품되었다.

만경대엔드겐공장, 함흥영예군인교정기구공장, 평양연마시공장, 신의주비철기구공장 등에서 내놓은 구강엔드겐장치, 초음파용접기, 박막식혈액, 이빨이식공구를 비롯한 전시품들은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첨단기술이 도입된 인공심장박동조종기, 인식과패기, 초

예술영화 《항철나무중대》가 새로 나왔다

최근 조선4.25에 예술영화영사에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명령을 한복술처럼 옹호보위해나가는 우리의 영웅적조선인민군대의 숭고한 사상정신적품모와 불패의 힘의 원천을 보여주는 호소성이 높고 인식교양적의의가 있는 예술영화 《항철나무중대》를 비롯한 여러편의 영화들을 새로 만들어 내놓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당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품모와 투쟁기풍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우리 군대의 전투력과 위력은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예술영화 《항철나무중대》(영화문학 《김일성상》계판인 리상숙, 연출 인민예술가 장길현)는 실제한 사실들에 기초하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따뜻한 어머니사랑속에 맺어진 판별의치의 위대한 생활력을 감동깊은 화폭으로 펼쳐보여주고있다.

영화는 중대의 병영구내에 서있는 500년이상 자란

항철나무도 든든한 뿌리가 있어 무성한것처럼 인민군인들이 병사들의 역센 뿌리가 된다면 그들모두가 항철나무처럼 푸르시심한 나뭇잎을 펼칠것이라는 뜻깊은 사상을 밝혀내고있다.

주인공인 중대장은 어머니와도 같이 다심하고 뜨거운 사랑을 지니고 물이 바르다는 위대한 선군혁명의 품속에서 성장한 우리 인민군대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사상정신적품모를 감명깊게 보여줌으로써 백전백승하는 백두산혁명강군의 불굴의 정력과 최고사령관의 두리에 전군이 혁명적투사로 굳게 뭉친 영웅적조선인민군대의 정신도덕적우월성을 힘있게 파시하고있다.

영화는 조선인민 창건 78돐을 성대히 기념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우리 혁명투쟁을 선군혁명명의 강위력한 주력군, 선군혁명투사들의 전위대로 키워주신 어머니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깊이 심어주고 천만민을 장군님을 따르는 선군의 한걸음 힘있게 떠밀어주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정양 4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모하마드 알리 파롤라히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이란이슬람공화국 외무성대표단이 23일 주체사상탑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리론적업적을 깊이 전하는 주체사상탑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탑신과 군상들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탑전망대에 올라 평양시의 전경을 부감하였다. 대표단은 22일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지도서관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당의 크나큰 은총속에 훌륭히 일떠선 전지도서관의 열람실들과 원각강의실들을 돌아보았다.

이란이슬람공화국 외무성 대표단 주체사상탑 참관

《정양 4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모하마드 알리 파롤라히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이란이슬람공화국 외무성대표단이 23일 주체사상탑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리론적업적을 깊이 전하는 주체사상탑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탑신과 군상들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탑전망대에 올라 평양시의 전경을 부감하였다. 대표단은 22일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지도서관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당의 크나큰 은총속에 훌륭히 일떠선 전지도서관의 열람실들과 원각강의실들을 돌아보았다.

이란이슬람공화국 외무성 대표단 주체사상탑 참관

《정양 4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모하마드 알리 파롤라히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이란이슬람공화국 외무성대표단이 23일 주체사상탑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리론적업적을 깊이 전하는 주체사상탑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탑신과 군상들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탑전망대에 올라 평양시의 전경을 부감하였다. 대표단은 22일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지도서관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당의 크나큰 은총속에 훌륭히 일떠선 전지도서관의 열람실들과 원각강의실들을 돌아보았다.

이란이슬람공화국 외무성 대표단 주체사상탑 참관

《정양 4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모하마드 알리 파롤라히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이란이슬람공화국 외무성대표단이 23일 주체사상탑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리론적업적을 깊이 전하는 주체사상탑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탑신과 군상들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탑전망대에 올라 평양시의 전경을 부감하였다. 대표단은 22일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지도서관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당의 크나큰 은총속에 훌륭히 일떠선 전지도서관의 열람실들과 원각강의실들을 돌아보았다.

이란이슬람공화국 외무성 대표단 주체사상탑 참관

제1차 전국의료기구전시회 진행

【평양 4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제1차 전국의료기구전시회가 19일부터 23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기계공장에서 의료설비를 한가지씩 만드는 운동은 별례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훈과 당의 보건정책을 받들고 기계공업성, 보건성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과 공장, 기업소, 과학연구기관에서 의료설비, 기구생산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70여개 단위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과학자들이 창조적성과 열정을 발휘하여 창안제작한 110여종의 140여종의 각종 의료설비와 기구, 재료들이 출품되었다.

만경대엔드겐공장, 함흥영예군인교정기구공장, 평양연마시공장, 신의주비철기구공장 등에서 내놓은 구강엔드겐장치, 초음파용접기, 박막식혈액, 이빨이식공구를 비롯한 전시품들은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첨단기술이 도입된 인공심장박동조종기, 인식과패기, 초

주조 무관단 만경대혁명학원 참관

【평양 4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돐에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 23일 만경대혁명학원을 참관하였다.

무관단원들은 학원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등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었다.

그들은 백두산3대강군의 손길에 학원인 길이는 자랑한 력사와 학생들이 우리 혁명의 피뎀기를 이어나갈 핵심물간으로 자라나고있는데 대한 해설을 들었다. 이어 그들은 훌륭히 꾸러진 강실과 교육시설들을 돌아본 다음 학생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었다.

《정양 4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모하마드 알리 파롤라히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이란이슬람공화국 외무성대표단이 23일 주체사상탑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리론적업적을 깊이 전하는 주체사상탑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탑신과 군상들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탑전망대에 올라 평양시의 전경을 부감하였다. 대표단은 22일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지도서관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당의 크나큰 은총속에 훌륭히 일떠선 전지도서관의 열람실들과 원각강의실들을 돌아보았다.

이란이슬람공화국 외무성 대표단 주체사상탑 참관

이란이슬람공화국 외무성대표단 주체사상탑과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 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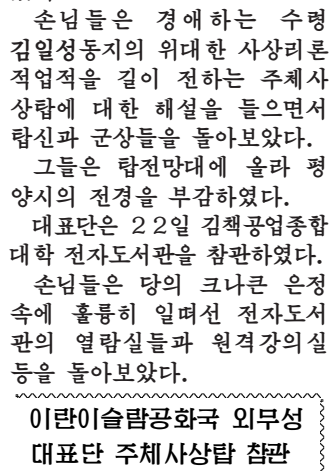
모하마드 알리 파롤라히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이란이슬람공화국 외무성대표단이 23일 귀국하였다.

이란이슬람공화국 외무성대표단 귀국



비행장에서 관제부문 일꾼과 주조 이란이슬람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대표단을 전송하였다.

수리아 디마스그종합대학대표단 귀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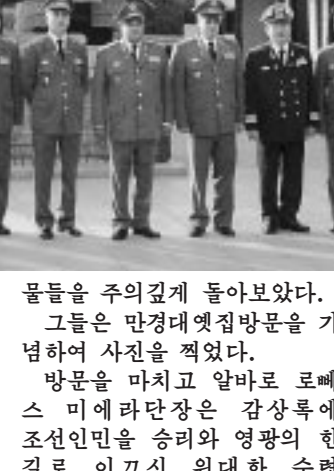
비행장에서 박관평 조선사회과학자협회 부위원장인 손님들을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주조 경제 및 무역차사단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참관



기관은 감상록에 《푸에블로》호를 참관하고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영웅적위훈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다.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썼다.

주조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참관



기관은 감상록에 《푸에블로》호를 참관하고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영웅적위훈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다.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썼다.

주조 무관단 만경대혁명학원 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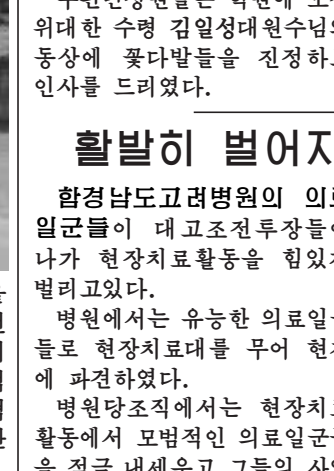
《정양 4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돐에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 23일 만경대혁명학원을 참관하였다.

무관단원들은 학원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등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었다.

그들은 백두산3대강군의 손길에 학원인 길이는 자랑한 력사와 학생들이 우리 혁명의 피뎀기를 이어나갈 핵심물간으로 자라나고있는데 대한 해설을 들었다. 이어 그들은 훌륭히 꾸러진 강실과 교육시설들을 돌아본 다음 학생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었다.

주조 무관단 만경대혁명학원 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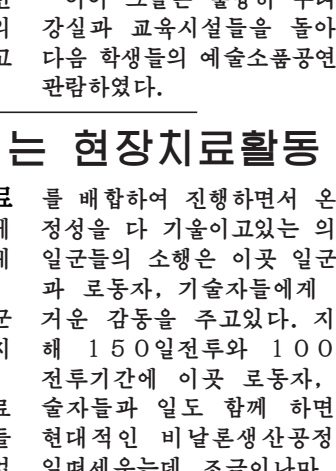
《정양 4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돐에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 23일 만경대혁명학원을 참관하였다.

무관단원들은 학원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등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었다.

그들은 백두산3대강군의 손길에 학원인 길이는 자랑한 력사와 학생들이 우리 혁명의 피뎀기를 이어나갈 핵심물간으로 자라나고있는데 대한 해설을 들었다. 이어 그들은 훌륭히 꾸러진 강실과 교육시설들을 돌아본 다음 학생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었다.

주조 무관단 만경대혁명학원 참관



《정양 4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돐에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 23일 만경대혁명학원을 참관하였다.

무관단원들은 학원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등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었다.

그들은 백두산3대강군의 손길에 학원인 길이는 자랑한 력사와 학생들이 우리 혁명의 피뎀기를 이어나갈 핵심물간으로 자라나고있는데 대한 해설을 들었다. 이어 그들은 훌륭히 꾸러진 강실과 교육시설들을 돌아본 다음 학생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었다.

비슈와나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과 하리주 곱다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사장이 23일 평양을 떠나갔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과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사장이 23일 평양을 떠나갔다.

비행장에서 박관평 조선사회과학자협회 부위원장인 손님들을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기관은 감상록에 《푸에블로》호를 참관하고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영웅적위훈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다.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썼다.

기관은 감상록에 《푸에블로》호를 참관하고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영웅적위훈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다.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썼다.

기관은 감상록에 《푸에블로》호를 참관하고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영웅적위훈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다.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썼다.

기관은 감상록에 《푸에블로》호를 참관하고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영웅적위훈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다.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썼다.

기관은 감상록에 《푸에블로》호를 참관하고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영웅적위훈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다.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썼다.

세계자주화위업의 새력을 펼치시여

오늘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 민들은 인류의 태양은 솟아오르 시어 인민의 자유와 행복,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되새겨보며 그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칭송의 목소리를 한껏 터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자주시대의 위대한 태양, 만민의 자애로운 어버이, 20세기의 가장 절충한 세계적수령으로 높이 칭송하는 진보적인민들의 목소리에는 조국과 혁명,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에 쌓인 그의 불멸의 세계사적업적에 대한 경탄이 함축되어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세계 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진보적인민들에게 협과 신심을 주시고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습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한평생 그 어느 위인도 따를수 없는 절세의 위인의 위대한 한성이였으며 세질의 흐름과 더불어 영원히 빛날 탁월한 수령의 한성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세계가 공인하는것처럼 20세기의 가장 절충한 사상리론가, 명도의 거장, 인류해방의 구세주이시고 자주시대의 향도자이시였다.

인류역사의 갈파에는 수많은 명인, 위인들이 기록되어있지만 경애하는 수령님처럼 비범한 예지와 뛰어난 지략, 위대한 품도, 탁월한 명도력을 지니시고 혁명과 건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헌명하게 명도하시어 시대와 인류앞에 불멸의 공적을 쌓아올린 그런 위인, 정치가는 없다. 일찍이 어린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우리 인민과 세계의 압박인민들을 당하는 비극적운명을 목격하면서 압제자들을 반대하고 지배와 예측이 없는 자주적인

새 세계를 일떠세울 원대한 뜻을 품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사람중심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개척해나갈 세계를 개조변혁할수 있는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영성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인민대중은 력사의 대상이 아니라 력사의 주체로서 세계를 개조하고 변혁해나가기 위한 위대한 투쟁의 진리가 밝혀짐으로써 세계는 새로운 력사적변혁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지난날 자주적인 존재, 창조적인 존재로서의 자신을 자각하지 못하고 제국주의자들, 지배주의자들에게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던 수억만인민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 자주의 리념에 접하여 세기적장에서 깨어나 민족적 및 계급적 압박과 예측을 반대하며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떨쳐나서게 되었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세계 여러 대륙의 많은 나라들에서 줄기차게 벌여진 반제국주의투쟁을 비롯하여 지난 세기에 일어난 력사적사건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각성된 인민대중의 투쟁의 고귀한 결실이 되 시대적변천이다.

세계인민들이 자주화를 요구하며 수많은 나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로 되었다. 주체사상이 안아온 이적적동적 변혁을 두고 세계는 《김일성주체사상 주체사상을 창시하신것은 신화속의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준것에 대비조 할수 없는 거대한 사변, 특출한 공적》이라고 격정을 터치고있다.

주체사상에 의해 각성된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자각하고 혁명투쟁의 길에 떨쳐나섬으로써 새로운 력사적시대, 자주시대 가 도래하게 되었다.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보다 높은

단계에 들어선 력사적환경은 그에 맞는 과학적인 투쟁전략과 로선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철회한 예지와 비범한 통찰력을 천봉으로 지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 력사발전의 합법적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판단하신데 기초하시어 온 세계의 자주화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리론을 제시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의 휘황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많은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온 세계의 자주화의 본질과 그 실현을 위한 투쟁과업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히시고 세계를 자주화된 세계로, 인민대중을 위한 세계로 개조변혁시켜나가도록 하시였다.

주제 71 (1982)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세계혁명명도사에 력사적인 해로 기록되어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해 4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합동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지시명령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전권의 교섭》에서 온 세계의 자주화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연설에서 그 어느 사상리론가도 견지하지 못한 자주화된 세계의 면모와 특징을 과학리론적으로 완벽하게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주화된 세계는 온갖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완전히 청산된 세계이며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자주권이 완전히 실현된 세계라는 고전적정신화를 내리시였다. 이것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올려세울수 있게 한 지도적지침, 불멸의 지침이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명확한 투쟁목표와 방향, 옹호는 방법론에 의해 조직진행될 때만이

승리적전진을 이룩하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자주화된 세계의 면모와 특징이 명확히 밝혀짐으로써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과학적인 전략전술과 정확한 투쟁목표를 가지고 목적지향성있게 진행되게 되었으며 온 세계를 자주화하기 위한 력사적전군이 다그쳐져 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매시기, 매 단계마다 온 세계를 자주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인민들이 들을 위한 투쟁원칙과 전략, 과업과 방도에 이르는 제반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어 세계 자주화운동을 끊임없는 앙양과 추제의 길로 이끄시였다.

주제 77 (1988)년 9월 8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40돐기념 경축보고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수하자》에서 온 세계를 자주화하기 위한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자주성에 기초한 국제관계를 확립하고 국제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명시하시였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리며 번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온 세계를 자주화하기 위한 투쟁의 본질과 기본방향, 과업과 방도가 명시됨으로써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자주성에 기초한 국제관계를 수립하고 세계를 자주화운동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사상리론적, 실천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

반제투쟁전략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온 세계를 자주화하기 위한 기본전략의 하나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은 제국주의, 지배주의세력이다. 제국주의, 지배주의세력이 존재하는 한 인민대중은 자기의 자주적

지향과 념원,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할수 없다. 제국주의는 잔악하고 끝없는 탐욕을 추구한다.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지배하는것을 통하여 더욱 살지고 세계에 대한 지배적지위를 유지해나갈것을 꾀하는것이 제국주의세력이다. 개별적인 나라와 지역이 자주화되었다고 하여도 지구상을 제국주의, 지배주의세력이 남아있는 한 그것은 공고하고 영원한것으로 될수 없으며 국제 침략세력에 먹히울지 모른다. 온 세계를 자주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잠시도 늦추지 말고 끊임없이 진행하며 더욱 강화해야 하는것이 반제투쟁이다.

특히 반제투쟁에서 기본과녁을 미국을 반대하는데로 돌리는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반미투쟁전략은 제국주의우두머리인 미제에게 공격의 예봉을 돌려 그 힘을 쇠대로 약화시키고 다른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눌러버리기 위한 탁월한 전략이다. 미제는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서 침략과 정쟁을 일삼으면서 평화를 파괴하고 력사의 전진운동을 가로막아나섰다. 미제에 의해 자주권을 침해당하지 않거나 침략위협을 받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었다.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다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성공적으로 진행할수 없는 것은 물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한결வும் 전진시킬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실현하는데서 반미투쟁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미제가 침략의 손길을 뻗치고있는 모든 지역, 모든 전선에서 그에 타격을 가하며 미제의 각을 틀어대 대한 반미투쟁전략을 제시하시어 싸우는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시고 반제반미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반제, 반미투쟁전략에 따라 세계도처에서 반미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라오름으로써 핵전쟁이 방지되고 평화가 수호되었으며 세계자주화업수행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승리적전진을 이룩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세계혁명명도사는 반제투쟁의 력사적위업수행의 단계를 실현하기 위한 불멸의 헌신으로 일관되어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제자주혁명 단계를 이룩하는데서 견지해야 할 원칙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해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자주를 지향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은 사상과 제도, 정권과 신앙, 나라의 발전수준과 명도의 크기에 관계없이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단결하며 단결하면서 투쟁하고 투쟁하면서 단결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자주성의 존중,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단결함에 대한 사상은 명실공히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의 모든 혁명력량을 단결전선에 묶어세우는 단결의 강령적지침으로 되였다. 반제자주혁명 단결의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들사이의 단결이며 그 목적은 온갖 지배와 예측을 없애고 자주성을 실현하는 데 있었다. 그러므로 자주성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공고한 단결을 이룩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반제자주혁명 단결에 관한 사상은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리해관계를 가지는 세계의 모든 반제자주력량을 묶어세워 반혁명세력에 비한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로 제국주의자들에게 반격을 가하고 반제자주위업을 전진시켜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백성의 전략적기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계 자주화위업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오늘날 인류의 자주위업, 사회주의 위업의 길에 찬란히 빛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걸으신 외국 방문로정은 무려 52만km를 훨씬

넘는다. 그이께서는 생전에 7만여 명에 달하는 세계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 정계, 사회계, 학계, 언론계인사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을 만나주시고 새 사회건설과 세계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그들을 고무격려해주시였다.

《우리는 존경하는 김일성동지의 사상대로 싸워 승리하였다. 》, 《우리에게 차제인 오늘의 승리는 위대한 영웅인 김일성동지께서 앞길을 가르쳐주셨기때문이다. 》, 《나라 인민들은 사상과 제도, 정권과 신앙, 나라의 발전수준과 명도의 크기에 관계없이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단결하며 단결하면서 투쟁하고 투쟁하면서 단결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자주성의 존중,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단결함에 대한 사상은 명실공히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의 모든 혁명력량을 단결전선에 묶어세우는 단결의 강령적지침으로 되였다. 반제자주혁명 단결의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들사이의 단결이며 그 목적은 온갖 지배와 예측을 없애고 자주성을 실현하는 데 있었다. 그러므로 자주성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공고한 단결을 이룩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제시하신 반제자주혁명 단결에 관한 사상은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리해관계를 가지는 세계의 모든 반제자주력량을 묶어세워 반혁명세력에 비한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로 제국주의자들에게 반격을 가하고 반제자주위업을 전진시켜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백성의 전략적기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계 자주화위업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오늘날 인류의 자주위업, 사회주의 위업의 길에 찬란히 빛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걸으신 외국 방문로정은 무려 52만km를 훨씬

조선반도가 핵화된 경위와 근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전쟁과 관련한 우리 나라 외부성비방목은 21일과 22일 중국과 일본의 통신, 신문이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조선의 무성인 《조선반도와 핵》이라는 제목의 비방목을 발표하여 조선은 6차회담이 재개되는것은 판재없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선반도와 세계의 비핵화를 위하여 시급성있는 노력을 기울여나갈것이라고 주장하였다고 전하였다.

통신은 비방목이 우리 민족이 장구한 기간 미국의 핵위협을

현실적으로 체감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공화국정부가 이러한 위협을 평화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한 비핵지대장설의 방법으로, 국제법에 의거하여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러한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는것이 명백해짐으로써 《핵에의 핵으로》대항하는 특수한 해결책을 선택하게 되었으며 미국이 우리를 한사코 핵보유에 떠밀었다고 까밝힌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통신은 다음과 같이 계속

우리 나라 외부성 비방목을 중국과 일본의 통신, 신문이 보도하였다.

현실적으로 체감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공화국정부가 이러한 위협을 평화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한 비핵지대장설의 방법으로, 국제법에 의거하여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러한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는것이 명백해짐으로써 《핵에의 핵으로》대항하는 특수한 해결책을 선택하게 되었으며 미국이 우리를 한사코 핵보유에 떠밀었다고 까밝힌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통신은 다음과 같이 계속

변함없이 견지하고있다.

조선은 다른 핵보유국들과 평등한 립장에서 국제적인 핵전략과방위와 핵물질을 안전관리노력에 힘쓰고있다.

조선은 필요한만큼 핵무기를 생산할것이지만 핵군비경쟁에 참가하거나 핵무기를 필요이상으로 과잉생산하지 않을것이며 다른 핵보유국들과 동등한 립장에서 국제적인 핵군축노력에 참가할것이다.

일본의 교도통신, 《아사히신보》, 《니혼케이자이신보》, 《도요신보》, 《마이니치신보》도 이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이탈리아의 평화회담은 그들이 바라는데가 아니다. 이스라엘이 마음에도 없는 평화회담을 통해 미국에 대한 반대표를 던졌다.

결국 미국은 위선자로서의 자들의 정체를 3개의 반대표를 통해 세계앞에 날날이 드러내놓은셈이다.

미국이 편력을 드는 이스라엘에 말한 안하무인적은 온갖 나쁜짓만 골라하는 중등정화의 압적존재이다.

중등정화해결의 핵심인 팔레스티나문제를 하루빨리 풀기 위한 국제적노력에 의해 옹호에 들어와 팔레스티나-이스라엘 평화회담문제에 물망에 올랐다는 것이다.

팔레스티나측은 이스라엘이 유대인 《정착촌》확장정책을 중지하는 조건에서 평화회담에 참가할것이라고 신포하였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동부구드에 있는 한 유대인지구에 1600동의 살림집을 건설할때 회의에서 한 미국대표의 말이 가관이었다.

그는 미국도 이스라엘에 유대인 《정착촌》건설을 중지할것을 요구하였지만 유대인권리사회의 이번 결의들이 《정착촌》 리용되었으면

이탈리아의 평화회담은 그들이 바라는데가 아니다. 이스라엘이 마음에도 없는 평화회담을 통해 미국에 대한 반대표를 던졌다.

결국 미국은 위선자로서의 자들의 정체를 3개의 반대표를 통해 세계앞에 날날이 드러내놓은셈이다.

미국이 편력을 드는 이스라엘에 말한 안하무인적은 온갖 나쁜짓만 골라하는 중등정화의 압적존재이다.

중등정화해결의 핵심인 팔레스티나문제를 하루빨리 풀기 위한 국제적노력에 의해 옹호에 들어와 팔레스티나-이스라엘 평화회담문제에 물망에 올랐다는 것이다.

팔레스티나측은 이스라엘이 유대인 《정착촌》확장정책을 중지하는 조건에서 평화회담에 참가할것이라고 신포하였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동부구드에 있는 한 유대인지구에 1600동의 살림집을 건설할때 회의에서 한 미국대표의 말이 가관이었다.

그는 미국도 이스라엘에 유대인 《정착촌》건설을 중지할것을 요구하였지만 유대인권리사회의 이번 결의들이 《정착촌》 리용되었으면

이탈리아의 평화회담은 그들이 바라는데가 아니다. 이스라엘이 마음에도 없는 평화회담을 통해 미국에 대한 반대표를 던졌다.

결국 미국은 위선자로서의 자들의 정체를 3개의 반대표를 통해 세계앞에 날날이 드러내놓은셈이다.

미국이 편력을 드는 이스라엘에 말한 안하무인적은 온갖 나쁜짓만 골라하는 중등정화의 압적존재이다.

중등정화해결의 핵심인 팔레스티나문제를 하루빨리 풀기 위한 국제적노력에 의해 옹호에 들어와 팔레스티나-이스라엘 평화회담문제에 물망에 올랐다는 것이다.

팔레스티나측은 이스라엘이 유대인 《정착촌》확장정책을 중지하는 조건에서 평화회담에 참가할것이라고 신포하였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동부구드에 있는 한 유대인지구에 1600동의 살림집을 건설할때 회의에서 한 미국대표의 말이 가관이었다.

그는 미국도 이스라엘에 유대인 《정착촌》건설을 중지할것을 요구하였지만 유대인권리사회의 이번 결의들이 《정착촌》 리용되었으면

조선이 조선반도와 세계의 비핵화를 위하여 시종일관한 노력을 기울일것이라고 주장

우리 나라 외부성 비방목을 중국과 일본의 통신, 신문이 보도하였다.

현실적으로 체감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공화국정부가 이러한 위협을 평화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한 비핵지대장설의 방법으로, 국제법에 의거하여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러한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는것이 명백해짐으로써 《핵에의 핵으로》대항하는 특수한 해결책을 선택하게 되었으며 미국이 우리를 한사코 핵보유에 떠밀었다고 까밝힌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통신은 다음과 같이 계속

지진피해를 가시기 위한 노력

지난 14일 중국의 청해성 옥수티베트족자치주 옥수현에서 리히터척도로 7.1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원은 이 현의 땅속 33km 깊은 곳에 있었다. 지진은 인하여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였으나 수만명의 살림집들이 무너지거나 파손되고 교통, 통신, 전력망이 마비되었다. 지난 19일 22시현재 지진은 2039명이 사망하고 195명이 실종되었으며 1만 2135명이 부상당하였다고 한다.

중국의 당과 정부는 진당, 전국, 진민을 총동원하여 지진피해를 가시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이고있다.

지진이 발생하자 중국의 호공도수석과 온가보총리는 즉시 모든 힘을 다하여 지진재해구제사업을 잘하고 피해를 입은 군중들을 백방으로 구원할것과 피해자들의 생활을 신속하게 잘 조직하고 재해지역의 사회안정을 수호할데 대한 중요지시를 하달하였다.

그에 따라 중국공무원들은 신속히 지진피해를 가시기 위한 조직사업을 진행하였다. 국무원부총리를 책임자로 하는 지진재해구제추진위부가 조직되었으며 중국정부와 해당 부문들에서 구제사업을 긴장하고 질서있게 진행하고있다.

지난 17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는 지진재해와 구제사업정형에 관한 지진재해구제추진위부의 보고를 청취하고 옥수지진재해

구제사업을 전면적으로 포지하였다. 회의에서는 판견적인 시기에 더욱 완강한 정신과 보다 신속한 행동,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지진재해구제의 제반 사업을 더 잘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호공도수석과 온가보총리를 비롯한 중국의 지도간부들은 지진피해현장에 직접 나가 피해상황을 료해하고 현지주민들을 위문하였으며 재해구제사업을 지도하였다.

외국방문도중에 지진발생에 대한 소식을 전달받고 방문일정을 미루고 앞당겨 귀국한 호공도수석은 18일 수송현을 찾아 지진재해정황을 료해하였으며 부상자들을 만나 위로하였다.

지진이 발생한 중국인민해방군과 인민무장경찰부대들이 신속히 구조장비를 개시하였다. 지진이 일어난 날 500여명의 무력이 동원되었으며 공군수송기들이 베이징과 성도로부터 구조인원과 물자들을 수송하고있다. 지진재해지역은 해발고도가 3900여m의 높은 지대에 자리잡고있으며 기온이 매우 낮고 바람이 세게 부는 등 불리한 자연기후현상으로 하여 수송조건이 불리하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조건에서도 지진재해구제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중국공안부는 청해성 공안교통관리위원회 비상사태에 전면적으로 진입하여 도로교통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할데 대한 긴급통지문을 하달하여 지진재해구제성원들과 구제대상, 부상자들에

대한 수송사업을 원만히 보장하는 등 지진재해구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였다.

중국구생부들 비롯하여 중앙과 지방의 여러 부문, 여러 단위들이 피해지역에 구조인원들을 파견하였으며 많은 지원물자들을 보내고있다. 결과 무너진 건물 등 폐허속에서 수천명의 부상자들이 구원되어 사생성을 비롯한 여러 지방의 병원들에서 치료를 받고있다.

엄청난 지진재해와 관련하여 중국의 전국에서는 사회적인 모금활동이 진행되고있다. 여기에서 수많은 기관들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하고있다. 지금 중국인민해방군과 인민무장경찰부대, 각지에서 파견된 구조성원들이 현지주민들과 힘을 합쳐 한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치료하며 주민생활을 하루빨리 안정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다.

중국에서 이번 발생한 지진재해는 중국인민들뿐아니라 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커다란 관심사로 되고있다. 여러 나라들과 국제기구들이 중국에 위문을 표시하고 원조를 제공하고있다.

중국의 당과 정부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진재해구제사업을 적극적으로 조직진행함으로써 일련의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우리 인민들은 중국인민이 지진피해후를 하루빨리 가시고 안정된 생활을 되찾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있다.

【조선중앙통신】

그 어떤 위협도 물리칠 립장 표명

이탈리아의 평화회담은 그들이 바라는데가 아니다. 이스라엘이 마음에도 없는 평화회담을 통해 미국에 대한 반대표를 던졌다.

결국 미국은 위선자로서의 자들의 정체를 3개의 반대표를 통해 세계앞에 날날이 드러내놓은셈이다.

미국이 편력을 드는 이스라엘에 말한 안하무인적은 온갖 나쁜짓만 골라하는 중등정화의 압적존재이다.

중등정화해결의 핵심인 팔레스티나문제를 하루빨리 풀기 위한 국제적노력에 의해 옹호에 들어와 팔레스티나-이스라엘 평화회담문제에 물망에 올랐다는 것이다.

팔레스티나측은 이스라엘이 유대인 《정착촌》확장정책을 중지하는 조건에서 평화회담에 참가할것이라고 신포하였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동부구드에 있는 한 유대인지구에 1600동의 살림집을 건설할때 회의에서 한 미국대표의 말이 가관이었다.

그는 미국도 이스라엘에 유대인 《정착촌》건설을 중지할것을 요구하였지만 유대인권리사회의 이번 결의들이 《정착촌》 리용되었으면

아프가니스탄주둔 나토군의 살인판형

아프가니스탄주둔 나토군이 《반테로》의 명목밑에 무고한 주민들에 대한 살인행위를 계속 감행하고있다.

19일 나토군은 코스트주에서 지나가는 승용차에 마구 사격을 가하여 2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4명의 아프가니스탄인들을 살해하였다 한다.

본사기자

반전시위를 벌리는 미국인들

이탈리아의 평화회담은 그들이 바라는데가 아니다. 이스라엘이 마음에도 없는 평화회담을 통해 미국에 대한 반대표를 던졌다.

결국 미국은 위선자로서의 자들의 정체를 3개의 반대표를 통해 세계앞에 날날이 드러내놓은셈이다.

미국이 편력을 드는 이스라엘에 말한 안하무인적은 온갖 나쁜짓만 골라하는 중등정화의 압적존재이다.

중등정화해결의 핵심인 팔레스티나문제를 하루빨리 풀기 위한 국제적노력에 의해 옹호에 들어와 팔레스티나-이스라엘 평화회담문제에 물망에 올랐다는 것이다.

팔레스티나측은 이스라엘이 유대인 《정착촌》확장정책을 중지하는 조건에서 평화회담에 참가할것이라고 신포하였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동부구드에 있는 한 유대인지구에 1600동의 살림집을 건설할때 회의에서 한 미국대표의 말이 가관이었다.

그는 미국도 이스라엘에 유대인 《정착촌》건설을 중지할것을 요구하였지만 유대인권리사회의 이번 결의들이 《정착촌》 리용되었으면

전염병에 대한 교해

○ 팔레시아에서 A(H1N1)형 돌핀감기가 계속 퍼져 피해를 입고있다. 19일 이 나라 보건부는 사라코크주에서 신형 독감에 걸려 앓고있던 4살 난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금까지 전국적

으로 신형독감에 의한 사망자수는 79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환자수는 1만 3158명에 달하였다 한다. 정부에서 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를 계속 하고있다.

○ 앙골라에서 지난해 310만

미국이 위선적인 행동에 회의 참가자들에게 쓴웃음을 지었다.

그런데 회의에서 한 미국대표의 말이 가관이었다.

그는 미국도 이스라엘에 유대인 《정착촌》건설을 중지할것을 요구하였지만 유대인권리사회의 이번 결의들이 《정착촌》 리용되었으면

미국이 위선적인 행동에 회의 참가자들에게 쓴웃음을 지었다.

그런데 회의에서 한 미국대표의 말이 가관이었다.

그는 미국도 이스라엘에 유대인 《정착촌》건설을 중지할것을 요구하였지만 유대인권리사회의 이번 결의들이 《정착촌》 리용되었으면